



모델 패션쇼 체험하는 어린이 26일 광주신세계 백화점에서 열린 어린이 직업 테마파크 '키즈 잡 스쿨'에 참가한 어린이집 원생들이 모델스쿨 패션쇼 체험에서 앙증맞은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기아차 환율 쇼크 ... 많이 팔고도 이익은 감소

올 상반기 7% 늘어난 154만7123대 판매

2분기 영업이익 지난해보다 31.7% 줄어

기아자동차의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다. 스포티지R과 쏘울 등이 세계시장에서 판매 호조를 이어갔지만 원·달러 환율 하락의 직격탄을 피하지 못했다.

기아차는 지난 25일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경영실적 발표회를 열고,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7%나 줄어든 7697억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2분기의 영업이익 감소세는 같은 환율 충격이 강타한 2012년 4분기(51.1%), 2013년 1분기(35.1%)에 이어 기아차 역사상 3번째로 가파른 폭이다.

기아차의 2분기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1% 감소한 12조545억원, 당기 순이익은 13.3% 줄어든 1조238억원씩을 기록했다. 올 상반기 전체 실적을 따지면 매출은 2조39803억원, 영업이익은 1조554억원으로,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9%, 영업이익은 17.8% 각각 줄었다. 세전이익은 2조3846억원, 당기순이익은 1조9001억원이었다.

기아차는 올 상반기 글로벌 시장에서 K3와 스포티지R, 쏘울 등 주요 차종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브랜드 이미지가 높아진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

0% 늘어난 154만7123대를 판매했다. 국내공장 출고판매는 주간 연속 2교대 안정화, 광주2공장 생산능력 증대 등에 힘입어 전년보다 7.2% 증가한 87만7000대, 해외공장 판매도 중국 3공장 가동 본격화 등의 영향으로 6.8% 늘어난 67만대를 기록했다. 수출 판매 단가도 1만3700달러에서 1만4300달러로 올라갔다. 하지만 전반적인 판매 증가와 수출 판매 단가 상승에도 상반기 영업이익률은 6.5%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3%포인트 떨어졌다. 환율 영향 탓이었다.

기아차 관계자는 "수출이 75%에 달하는 사업 구조상 상반기에 평균 환율이 지난해보다 58원 하락하는 등 원고 현상이 지속하면서 수익성이 크게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기아차는 원화 강세와 엔저 현상, 신중국 경제 불안, 미국 출구전략 등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하반기에도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아차는 세계 시장에서 높아진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제값 받기'를 통한 내실경영을 강화하고, 기업체질을 개선해 위기를 극복할 계획이다.

이날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한 박한우 기아차 재경부장은 "원화 강세 기조 지속, 신중국 불안, 임단협 등으로 하반기에도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비상계획 가동으로 경영 효율화를 꾀하고, 각 지역 시장에 대한 맞춤형 밀착 관리로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추석전 밀어내기 출하 ... 산지 쌀값 17만원선 붕괴

80kg에 16만8152원

전년동기보다 4.8% 낮아

정부가 내년부터 쌀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한 가운데 산지 쌀값이 재고와 추석전 밀어내기 물량 출하로 최근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0kg 기준으로 17만원선도 붕괴됐다.

민간 농업연구기관인 지에스앤제이(GS&J) 인스티튜트는 지난 15일 기준 산지 쌀값이 80kg에 16만8152원으로 전년 동기의 17만6552원보다 4.8%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GS&J는 이에 대해 2013년산 품작으로 산지농협 재고량이 작년 동기보다 10% 이상 많고, 이른 추석(9월 8일)에 맞춰 신곡이 나오기 전에 밀어내기 출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지난 15일 현재 산지 쌀값이 작년 수확기(10~12월) 평균가격 17만5279원보다 4.1% 낮아, 쌀 수확을 앞두고 나타나 는 역계절 진폭이 10일 전보다 0.2% 포인트 늘어났다.

산지 쌀값의 역계절진폭은 1월초 1.3%에서 3월25일에는 2%로 늘어났으며 5월 15일

3%, 6월 15일 3.5%, 7월 15일에는 4.1%로 확대됐다. GS&J는 앞으로도 2013년산 쌀 밀어내기 출하가 지속되는 8월까지 역계절 진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쌀도·소매가 역시 떨어지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24일 쌀 도매 가격은 20kg당 4만 26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05% 낮고, 쌀 소매가도 4만5125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85% 낮게 거래되고 있다.

이같은 쌀 값 하락세는 올해 쌀 자급률이 9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국내 쌀 소비량의 9%에 수준인 쌀 의무수

입(MMA)물량까지 합치면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쌀값 하락세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로또복권		(제608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4	8 18 19 39 44 41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943,530,018	7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70,857,866	32
3	5개 숫자일치	1,495,681	1,516
4	4개 숫자일치	50,000	74,353
5	3개 숫자일치	5,000	1,243,159



27일 광주시 북구 매곡동 서진 엘리체 프라이م 견본주택을 방문한 시민들이 분양 조건을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다. 이 견본주택은 최근의 광주지역 부동산 열기를 반영하듯 사흘간 2만7000여명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일곡 서진 엘리체 견본주택 방문객 '복새동'

3일간 2만7000여명 몰려

계약률 100% 달성 전망

"일곡지구에 오랜만에 들어서는 새 아파트잖아요. 관심이 많습디다."

광주 북구 일곡지구에 분양되는 서진 엘리체프라이م 아파트가 실수요자의 관심이 몰리면서 계약률 100%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서진종합건설에 따르면 지난 25일 청약에 들어간 일곡 엘리체프라이م 견본주택 현장은 사흘간 방문객만 2만7000여명이 몰릴 정도로 복새동을 이뤘다. 현장 입구는 대기자가 200m 이상 줄을 서며 기다렸고, 판촉물이 급세 동남 정도로 인기몰이를 했다.

총 526가구에 지어지는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74㎡ A형 191가구와 B형 80가구, C형 17가구 등 288가구, 전용

면적 84㎡ A형 163가구, B형 75가구 등 238가구에 구성됐다. 대부분의 세대가 광주시민이 선호하는 정남향을 향하고 있으며, 통풍과 채광이 좋은 판상형으로 배치돼 있다. 다양한 수납 공간도 함께 갖추고 있다.

견본주택을 방문한 박모(45)씨는 "새 아파트가 드문 일곡지구에 모처럼 들어서는 신규 아파트라 이사를 염두에 두고 찾아왔다"며 "인테리어나 입지가 좋아 꼭 청약에 당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입지와 상품성이 좋아 청약자가 몰리면서 경쟁률이 치솟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계약자에게 안방 및 거실에 에어컨을 무상 증정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어서 실수요자의 계약률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전남여성경제인연합회 파행 운영

회비 사비 사용·횡령 의혹

회장 탄핵 요구·검찰 고발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전남지회가 창립 7개월여 만에 경찰수사를 받는 등 내분으로 휘청이고 있다.

27일 여성경제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전남지회(회장 윤순남)는 지난 1월 광주·전남지회에서 분리된 뒤 54개 회원사 대표로 구성, 새롭게 출범했다. 전남지회는 전남도로부터 5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여성기업 활성화 및 입주기업 지원 등 전남지역 여성경제인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받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윤 회장은 "회비와 관련해 집행부의 부도덕성이 도마 위에 오르며 파국으로 치닫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지회 사무실 임대료와 집기 구입, 선물 비용 등이 서류 조작을 통해 부실하게

처리됐다"며 일부 회원들이 반발하고 일어선 것.

협회의 한 회원은 "회장과 이사가 영수증도 없이 비용을 처리하거나 이사회 결정을 생략한 채 회비를 집행한 뒤 사비로 사용했다"며 "이후에도 회비 사용으로 문제가 된 부회장을 회장이 감싸고 돌아 협회 운영을 방해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남지회는 지난 5월 회원들이 회장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26명의 회원이 회장 탄핵동의서를 본회에 제출하는 등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경찰 수사가 길어지자 '올바른 수사'를 위한 청원서까지 검찰에 제출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윤 회장은 "회비와 관련해 정상운영했고, 횡령한 적도 없다"며 "회원들이 하는 얘기와 사실이 다르다. 경찰이 수사를 통해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임동률기자 exian@

www.yh-bus.com

예향 고속관광과 함께 떠나요!

힐링여행

회사 출 · 퇴근 버스임대 - 여행지 사전예약
단체여행 버스대절 - 최신버스 저렴한 가격
최상의 서비스 및 예약자 선물증정

예향 고속관광 YEHYANG TOUR

고객상담 및 예약센터 TEL.062.944.5775 FAX.062.944.5995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 805(혹석사거리)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편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무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동성동 660-29